



세계 애견연맹

SECRETARIAT GENERAL: 13 Place Albert 1er, B - 6530 Thuin (Belgique)

(2016년 8월 1일부터 발효)

- 무단전재, 무단재배포, 2차가공시법적처벌조치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 12월 17일

FCI 스탠다드 No. 143

도베르만
Dobermann

Dobermann



Offizielle Abbildung des Rassestandards Nr. 143
gültig für alle FCI angeschlossene Vereine

copyright Monique van Wijk, NL

원산지: 독일

공식 표준의 발표일자: 2015년 11월 13일

용도: 반려견, 호위견, 사역견

FCI 분류:

그룹 2 핀셔 & 슈нау저 - 몰로세르 견종 - 스위스 마운틴 독 & 캐틀 독
 섹션 1 핀셔 & 슈нау저
 훈련경기대회 실시.

역사: 독일에서 유래한 견종으로, 도베르만이라는 명칭은 맨 처음 사육한 사람인 프리드리히 루이 도베르만(1834.1.2 - 1894.6.9)의 이름에서 왔다. 세금 징수관이었던 그는 비식용동물 사육장(도살 업체)를 운영하면서 때때로 개를 잡으러 다녔다고 전해진다. 당시에는 떠돌이 개들을 잡아들이는 일이 모두 합법적인 행위였다. 도베르만은 데리고 있던 개들을 이용하여 아주 사나운 견종을 만들었고, 그렇게 탄생한 견종은 '도살업자의 개'로 불리며 만들어진 당시부터 비교적 순수한 견종으로 여겨졌다. 이 개가 현재의 도베르만이 탄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가 만든 개는 로트바일러 종의 초기 형태와 당시 튀링겐 지역에 살던 쉽독이 혼합된 모습이었으며 검은색의 몸에 적갈색 무늬가 있었다. 도베르만이 이 같은 견종을 만든 시기는 18세기로, 기민하고 방어 능력이 매우 우수하여 가정견으로 키워지거나 호위견이나 경찰견으로도 활용되었다. 특히 경찰견으로 널리 활용되면서 '헌병견'이라는 별칭도 붙여졌다. 해로운 동물들을 대거 잡아들이는 일에도 활용되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도베르만은 20세기 초, 자연스레 경찰견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도베르만은 힘이 좋고 근육이 잘 발달한 중형견이다. 체구와 달리 우아하고 귀족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몸의 윤곽선에서 특히 이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 반려견, 호위견, 사역견, 가정견으로 매우 적합하다.

외모: 몸의 형태가 정사각형에 가깝고 특히 수컷의 경우 이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가슴 앞부분부터 엉덩이 끝까지 측정한 체장이 체고보다 수컷은 5 퍼센트 이상, 암컷은 10 퍼센트 이상 길면 안 된다.

행동/성격: 친근하고 차분하며, 가족에게 매우 헌신적이다. 예민함과 날카로움(경계심)이 모두 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 자극을 받아 분노하는 한계지점도 적당한 수준이어야 하며 주인과 충분히 접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훈련 시키기가 수월하며 임무를 즐기는 편이다.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용기, 힘든 일도 굳게 해 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특히 자신감과 용감무쌍한 면이 잘 드러나야 하며, 주변의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고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

머리

두부: 튼튼하고 크기가 체구와 잘 맞아야 한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끝이 뭉툭한 썩기 모양이고, 정면에서 바라보면 두상의 윗면이 거의 일직선이어야 하며 귀 부위에서 낮아지지 않아야 한다. 주둥이의 윤곽선도 두개골의 윗면과 평행하며, 목과 만나는 부분은 완만한 곡선을 그린다. 눈썹 활은 충분히 발달되어 있으나 튀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머리 중앙의 홈도 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두부는 과도하게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 머리 양쪽 측면이 볼록한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위턱과 광대뼈는 약간 튀어나온 편이나 머리 전체 길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머리 전체에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다.

스톱: 두드러지지 않지만 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면부:

코: 콧구멍이 큼직하며 모양은 가로가 더 넓은 원형이다. 전체적으로 돌출된 느낌은 없어야 한다. 색은 모색이 검은색(black)인 경우 검은색이며, 모색이 갈색(brown)이면 검은색에 옅은 음영이 들어간 색이다.

주둥이: 머리 윗부분의 크기와 비율이 잘 맞고 충분히 발달된 형태여야 한다. 세로 길이(깊이)가 깊고, 입이 벌어지는 범위가 어금니(후구치)까지 넓게 이어져야 한다. 또한 주둥이 너비는 위아래 앞니가 모두 보일 정도로 충분히 넓어야 한다.

입술: 탄탄하며 턱과 밀착되어 있어 입을 다물면 단단히 꼭 다문 형태가 된다. 잇몸 색은 짙은 편이며, 모색이 갈색(brown)인 경우 잇몸 색도 옅다.

턱/이빨: 위아래 턱이 튼튼하고 넓적하다. 협상교합이며, 이빨은 42개로 크기가 일반적인 수준이고 정확한 자리에 위치해야 한다.

눈: 크기는 중간 정도로 타원형이며 색은 짙은 편이다. 모색이 갈색(brown)인 경우 눈 색깔이 더 밝아도 허용된다. 눈꺼풀은 안구와 밀착된 형태이며, 털로 덮여 있다.

귀: 자연 상태 그대로 두었을 때 적절한 크기여야 한다. 두개골에서 높이가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다. 눕혔을 때 볼에 닿는 정도의 크기가 가장 이상적이다.

목: 길이가 충분히 길고 몸 전체 크기, 머리 크기와 비율이 맞아야 한다. 가늘지만 근육질이다. 위로 조금씩 길어지는 형태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린다. 위로 곧게 세운 자세에서 우아함이 물씬 느껴진다.

몸통:

기갑: 높이나 길이가 모두 두드러지는 편이며, 특히 수컷에서 그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기갑의 높이와 길이에 따라 기갑부터 엉덩이로 이어지는 등선의 기울기가 결정된다.

등: 짧고 탄탄하다. 충분히 넓고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다.

허리: 충분히 넓고 근육질이다. 암컷은 새끼에게 젖을 물릴 공간이 필요하므로 허리 길이가 수컷보다 약간 더 긴 경우가 있다.

엉덩이: 엉치뼈(천골)에서 꼬리가 시작되는 부위까지 매우 완만한 기울기로 낮아진다. 이 때 형태가 둥그스름해야 하며, 일직선으로 이어지거나 높이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엉

덩이는 넓적하고 근육질이다.

가슴: 길이, 너비가 모두 몸 전체 길이에 알맞은 비율이어야 한다. 늑골은 아치형으로 굽어 있으며, 가슴의 깊이는 체고의 약 50 퍼센트에 해당되어야 한다. 충분히 넓고 특히 앞가슴이 잘 발달된 형태여야 한다.

복부 윤곽선과 복부: 가슴뼈 아랫부분부터 골반 뼈까지 확연히 훌쭉해지는 형태여야 한다.

꼬리: 자연 상태 그대로 두어야 하며, 살짝 곡선을 그리면서 높이 들고 있는 모양이 가장 이상적이다.

사지

앞다리

전체적인 모습: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고 바닥과 수직으로 만난다. 매우 잘 발달된 편이다.

어깨: 어깨뼈가 가슴 가까이에 위치하며, 양쪽 모두 가장자리에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다. 등뼈가 시작되는 부위까지 이어지며, 최대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뒤로 충분히 젖혀진 형태를 띤다. 기울어진 각은 수평면 기준 50 퍼센트 정도이다.

앞다리 상부: 길쭉하고 근육질이다.

무릎: 양쪽 무릎의 간격이 가까운 편이며, 방향이 바깥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전완: 튼튼하고 곧게 뻗어 있다.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 길이는 몸 전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발목관절: 튼튼하다.

발목: 뼈가 튼튼하다. 정면에서 보면 일자로 곧게 뻗어 있다. 측면에서 보면 살짝 비스듬하다.

앞발: 짧다. 발가락은 서로 밀착되어 있으며 위로 볼록한 모양이다(고양이 발과 유사함). 발톱은 짧고 검은색(black)이다.

뒷다리

전체적인 모습: 뒤에서 보면 엉덩이 위와 아래 부분에 골반 근육이 크게 발달되어서 넓적하고 둥근 모양이다. 골반부터 허벅지 윗부분과 아랫부분까지 근육이 길게 이어져 다리가 매우 넓적하며 허벅지, 무릎관절 부위, 허벅지 아랫부분 모두 잘 발달된 형태를 띤다. 뒷다리는 전체적으로 튼튼하며 일자로 곧게 뻗어 있고 양쪽이 평행을 이룬다.

허벅지: 길이와 너비가 충분한 수준이며 근육질이다. 엉덩이와 이어지는 부위는 수평면 기준 약 80 - 85도로 넓은 각을 형성한다.

무릎: 튼튼하다. 무릎을 기준으로 허벅지 윗부분과 아랫부분, 무릎관절을 구분할 수 있다.

허벅지 하부: 길이는 중간 정도이며, 뒷다리 전체 길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비절: 길이는 중간 정도로 양쪽이 평행하다. 허벅지 하부와 발목을 잇는 연결지점 역할을 한다.

발목: 짧고 바닥과 수직으로 만난다.

뒷발: 앞발처럼 뒷발가락도 짧고 위로 볼록하며 발가락이 서로 밀착되어 있다. 발톱은 짧고 검은색(black)이다.

걸음걸이/움직임: 걸음걸이는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외형적인 특성에 전체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준다. 유연하고 우아하면서 민첩하고 자연스럽게 걷고, 보행 시 지면을 충분히 포괄해야 한다. 앞다리는 최대한 멀리 딛고, 뒷다리도 멀리까지 길게 뻗으면서 유연한 움직임으로 추진력을 제공해야 한다. 각 앞다리와 대각선 방향에 있는 뒷다리가 동시에 이동하고 등과 인대, 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피부: 전신의 피부가 몸과 밀착되어 있으며 색이 선명하다.

피모

털: 짧고 탄탄하며 밀도가 높다. 피부에 밀착해서 자라고 촉감이 부드럽다. 털이 전신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하모는 허용되지 않는다.

모색: 검은색(**black**) 또는 적갈색(**rust red**)이 섞인 갈색(**brown**)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두 가지 모두 색이 선명하며 또렷한 무늬(**황갈색(tan)**)가 형성된다. 황갈색(**tan**) 무늬는 주둥이와 볼, 눈썹 윗부분에 반점으로 나타나며, 목 앞쪽에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형성된다. 또한 앞가슴과 네 다리의 발목, 발, 뒷다리의 허벅지 안쪽, 다리 윗부분, 꼬리 아랫부분에도 나타난다.

크기와 체중:

체고:

수컷: 68 - 72 cm

암컷: 63 - 68 cm

이 범위의 중간에 해당되는 크기가 적절하다.

체중:

수컷: 약 40 - 45 kg

암컷: 약 32 - 35 kg

결점 요소: 상기 기술된 사항에서 벗어나는 점은 모두 결점으로 간주된다. 각 결점의 중대성은 기준에 벗어난 정도와 개의 건강 및 복지, 전통적으로 부여되는 임무의 수행 능력에 끼치는 영향을 정확한 비율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 성별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체구가 튼튼하지 않은 경우, 몸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운 경우, 다리가 너무 긴 경우, 뼈가 약한 경우
- 머리가 너무 무겁거나 좁은 경우, 또는 너무 짧거나 긴 경우, 스톱이 과도하게 드러나거나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경우, 눈이 둥글거나 길게 찢어진 형태인 경우, 눈의 색이 옅은 경우, 볼이 지나치게 큰 경우, 윗입술이 처진 경우, 눈이 심하게 돌출되거나 폭 들어간

경우, 귀가 두개골에서 너무 높거나 낮은 곳에 자리하는 경우, 입이 충분히 넓게 벌어지지 않는 경우

- 등이 일직선을 곧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 등이 오목하거나 위로 굽은 경우, 가슴의 깊이 나 너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꼬리 뿌리가 엉덩이에서 너무 낮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 등에서 엉덩이로 가파른 곡선이 형성되는 경우, 복부가 과도하게 활쭉하거나 충분히 활쭉하지 않은 경우
- 앞다리의 각 부분이 연결된 각도가 지나치게 좁은 경우, 뒷다리의 각 부분이 연결된 각도가 심하게 넓거나 좁은 경우, 무릎이 풀린 경우, 네 발의 간격이 너무 좁거나 넓은 경우, 뒷다리 비절의 간격이 너무 좁아 그 아래 다리가 바깥으로 벌어진 경우, 반대로 양쪽 비절 간격이 너무 넓은 경우, 발가락을 짝 펴고 있거나 발가락에 힘이 없는 경우, 발가락이 휘어진 경우, 발톱 색깔이 흐릿한 경우
- 황갈색(tan) 무늬의 색이 너무 열거나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무늬가 얼룩처럼 번진 형태인 경우, 마스크 부위의 색이 과도하게 짙은 경우, 다리에 커다란 검은색(black) 반점이 형성된 경우, 가슴 부위의 무늬가 잘 구분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큰 경우, 털이 길고 부드러운 경우, 털이 꼬불꼬불하거나 윤기가 없는 경우, 피모의 솔이 적고 균데균데 무늬처럼 털이 빠진 경우
- 크기가 상기 기준에서 2 cm 벗어나면 품질평가 점수가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 **걸음걸이가 조화롭지 않은 경우, 특히 측대로 걷는 경우**

실격 요소:

-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소심한 경우
- 신체나 행동에 비정상적인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 눈이 황색(yellow)인 경우(맹금류 같은 인상), 양쪽 눈 색깔이 다른 경우
- 위턱이 돌출된 경우, 절단교합을 형성하는 경우, 아래턱이 돌출된 경우, 이빨의 개수가 치식을 기준으로 부족한 경우
- 흰색(white) 반점이 형성된 경우, **눈에 띄게 하모가 존재하는 경우**
- 크기가 상기 기준에서 2 cm 이상 벗어난 경우

주의사항:

- 수컷은 정상적인 고환 두 개가 음낭 속으로 완전히 들어간 형태여야 한다.
- 기능적으로나 임상학적으로 건강하고 일반적인 형태를 가진 개체에 한하여 번식에 활용하여야 한다.